

일일 국제 기후·에너지 동향

【광물자원】

□ 캐나다산 희토류 중국 수출 무산(주밴쿠버총영사관)

- 6.17(월) 현지 언론(Globe and Mail) 보도에 따르면 캐나다산 희토류의 중국 회사(Shenghe Holdings社)로의 판매 계획이 캐나다 연방정부 압력으로 무산되었으며, 동 희토류는 서스캐처원 주정부 산하 Saskatchewan Research Council(SRC)에 판매되었음.
 - 호주 기업 Vital Metals社는 노스웨스트 준주 주도인 Yellowknife市에서 약 110km 남동쪽에 위치한 Nechalacho 광산에서 채굴한 희토류 비축물을 Shenghe Holdings社(중국)에 260만 호주 달러(AUD)에 판매할 계획이었으나, 캐나다 연방 천연자원부의 개입으로 SRC(캐나다)에 기존 금액보다 높은 가격인 330만 호주 달러의 판매 계약을 체결
- 동 보도에 따르면, 캐나다 연방정부는 중국의 핵심광물 공급망 영향력 증대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자국의 핵심광물 안보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며, 캐-중 관계 경색에 따라 2022.11월 자국 리튬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중국 기업 3곳에 투자 철회를 명령하였으며, Francois-Philippe Champagne 연방 혁신과학산업 장관은 중국 기업이 캐나다의 핵심광물 회사에 투자하는 것을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할 것이라고 발언함.
 - 밴쿠버에 본사를 둔 캐나다 핵심광물 기업 Solaris Resources社는 2024.5월 중국 기업 Zijin Mining Group社에 자사 지분 15%(약 1억 3천만 캐불 상당) 매각을 추진하였으나, 캐 연방정부가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해당 지분 매각을 승인하지 않자 이를 취소

【기후 · 에너지 정책】

□ 스위스, 2023년 에너지소비 통계 발표(주스위스대사관)

- 스위스 에너지청 발표에 따르면, 2023년 스위스 에너지 소비량은 전년 대비 소폭(0.3%) 증가했으며, 특히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항공교통의 회복에 따라 항공유 판매가 크게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이며, 총 에너지 소비량에서 화석연료 비중은 35%를 차지함.
 - 항공유 판매량이 전년 대비 19% 증가했고, 휘발유(+3.4%)/디젤(-2.1%) 판매량도 0.3% 증가했으나, 여전히 2019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집계
 - 에너지소비의 장기 성장 추세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인 영주인구(+1.3%), 국내총생산(+0.7%), 자동차수(+1.2%), 주택수(증가율 미집계)도 증가
- 재생에너지원이 점차 난방용 화석에너지원을 대체하고 있으며, 2023년 최종 에너지소비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은 11.8%*로 지속 증가세를 보임.

* △에너지 목재 5.6% △외기열 3% △지역난방 2.9% △태양열 0.3%의 합. 끝.